

#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 조성 사업 추진 본격화



## 군, 스포츠·관광 복합단지 등 전지훈련 메카 개발 에어돔·국제규격 야구장·관광호텔 등 인프라 구축

진도군이 스포츠와 관광, 문화 콘텐츠를 결합한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진도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최근 승인한 ‘진도아리랑마을관광지 조성계획’에 이어 군 관리계획 등 진도군의 고

시각이뤄짐에 따라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사업은 진도군 임회면 상관리 일원의 약 11만5702㎡(3만5000평) 부지에 스포츠 및 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야구 관련 기반 시설(인프

라)을 중심으로 e-스포츠와 문화 콘텐츠 시설, 호텔까지 결합한 ‘새로운 스포츠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베이스볼타운에는 에어돔 야구장 1면과 국제규격 야구장 2면 등 총 3개의 야구장이 조성돼 사계절 훈련시설로 사용될 예정이며, 겨울철에는 전국 야구단의 전지훈련과 스포츠 훈련(트레이닝)의 거점시설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약 200객실 규모의 3성급 관광호텔을 건립하고, e-스포

츠 경기와 문화 콘텐츠 관련 시설도 함께 도입해 연중 운영이 가능한 스포츠·문화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광호텔의 경우 지상부 10층을 조립식 건축 공법(모듈러 공법)으로 건설하기로 해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업은 민간 투자자들이 초기 단계에서 사업 관련 용역비를 선투자하며, 토지 매입과 기반 시설 조성, 시설물 건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

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사업 준비 과정에서 약 30억원 규모의 민간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진도아리랑베이스볼타운은 스포츠와 관광, 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이다”며 “전국 단위 스포츠 행사와 다양한 콘텐츠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증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gwangnam.co.kr

## 영암 일손 도움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입국

### 고구마 농가·공공형 계절근로 투입...언어소통 도움미도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영암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과 원활한 현장 소통을 지원할 언어소통도우미 1명이 입국했다. 이번에 입국한 인원은 지난해 6월 영암군이 캄보디아 타깨우주, 캄땡쑤, 캄땡스프주와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다. 이 중 40명은 고구마 농가에, 나머지 40명은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고용돼 일손이 필요한 농가 곳곳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 동시에 영암군의 농업 현장에서 우수한 농업기술을 배우며 다양한 경험을 쌓게 된다.

입국 당일 영암군청 왕인실에서 개최된 계절근로자 입국 환영 행사에는 유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 박종대 영암군의회 의장, 율출산 농업장, 계절근로자 80명, 언어소통도우미 1명, 고용농가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및 안전교육도 함께 진행됐다. 유재광 영암군수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농작물 정식기를 맞아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낯선 환경에서도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인권 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영암지역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80명과 원활한 현장 소통을 지원할 언어소통도우미 1명이 입국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 해남, 장례식장 다화용기 도입 수거·세척·재공급 체계 구축

전남 해남군이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화용기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환경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비용 절감 효과까지 기대되면서 지역 장례 문화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해남군은 장례 현장에서 사용되는 접시, 수저, 컵 등 일회용 식기를 다화용기로 전환하는 ‘다화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핵심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친환경 장례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군은 해남지역자활센터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화용기의 공급·수거·세척·재공급까지 이어지는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용기는 전문 세척 과정을 거쳐 다시 현장에 투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플라스틱 등 석유 기반 일회용품 가격도 함께 오르는 상황이다. 군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 다화용기 도입이 일회용품 구매 비용을 줄이는 대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용 비용은 용역 사업비로 충당돼 유가족이 추가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앞서 군은 8일 해남군산림조합과 국제장례식장, 우수영장례식장 등 지역 내 장례식장 3곳과 ‘장례식장 다화용기 사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군은 참여 기관과 협력해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남=박기성 기자 city@gjdream.com

## ‘완도 여행 반값으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시범사업...가족 최대 50만원 지원

완도군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지역 사랑 휴가 지원(반값 여행)’ 시범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본격적으로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 숙박, 식사, 체험, 특산물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비용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접 지역(해남군, 강진군)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 완도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다. 여행 경비를 지원 받기 위한 최소 소

비 금액은 10만원이다. 지원 금액은 개인(1인) 기준 최대 10만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원, 팀(2인 이상)은 최대 20만원, 단체(가족, 최대 5인)는 50만원이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완도에서 전복 요리를 먹고 숙박하는 데 40만원을 지출했다면 2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 반값에 여행을 즐기는 셈이 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행을 오기 전(최소 1일 전)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을 통해 5월 여행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여행이 끝나면 10일 이내 완도군 대표 관광지에서 촬영한 사진 2장(신청자 및 동반인 필수 포함) 이상, 영수증을 증빙하면 5일 이내에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chak 어플)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운영되는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과 완도군청(고시공고)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사업을 통해 반값으로 완도에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득한 치유 여행을 즐겨보시길 추천한다”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꼭 사전 여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완도로 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 강진, 햇빛소득마을 조성 참여마을 모집

### 1000kW 규모 주민 주도 태양광...소득 창출 기대

강진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할 마을을 모집한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은 마을 주민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전력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 및 주민 소득으로 환원하는 주민 주도형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전국 500개 이상 마을 선정을 목표로 추진되며, 지역 내 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모델을 주목받고 있다.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마을 주민 70% 이상의 동의와 마을총회 의결이 필요하며, 1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설립이 요구된다. 또 태양광 발전 규모는 300kW 이상 1000kW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15% 이상을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 선정된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 금융지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부여, 계통 연계 지원, 교육 및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강진=이진목 기자 sa433252@gwangnam.co.kr

광남일보 골목상권 활성화 연중캠페인

## 광주·전남의 골목경제가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골목경제는 지역공동체의 뿌리이자 **상생경제**입니다.

주민과 상인이 **상생 협력**으로 소비자에게는 할인혜택이 주어지고, 상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은 선순환 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던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골목형 상점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광남일보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연중 캠페인을 통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산구 첨단지구 골목형상점가가 진행한 ‘제1회 광산위터락 페스티벌’ 관련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지난 2021년 광산구 ‘제1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산정상인회 골목형상점가의 모습

주최



주관



후원

